



여름 극장가 배우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황정민·이정재(왼쪽)가 티켓파워를 과시했고, '반도' 강동원(가운데)도 성과를 냈다. '강철비2:정상회담' 정우성은 손익분기점 돌파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제공 | CJ·롯데엔터테인먼트·NEW

황정민·이정재 > 강동원 > 정우성

브라더 콤피의 '다만...' 벌써 380만 '반도'도 380만...해외진출 후광효과 175만 '강철비2' 손익분기점 힘들듯

7년 만에 다시 뭉친 '브라더'의 힘은 강했다. 여름 극장가를 달군 한국영화 '빅3' 흥행 대결의 성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5일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통해 2013년 '신세계'에 이어 재회한 절친한 선배배이자 서로를 '브라더'로 칭하는 배우 황정민과 이정재가 티켓파워를 과시하면서 같은 시기 맞붙은 강동원, 정우성의 기록을 앞질렀다. 대륙을 무대로 쫓고 쫓기는 킬러와 추

격자의 대결을 그린 액션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감독 홍원찬·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가 광복절과 17일 대체공휴일이 연결된 연휴동안 손익분기점인 350만 관객을 돌파, 누적 380만여 명에 다다랐다. 17일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2주 먼저 개봉한 강동원의 '반도'(감독 연상호·제작 영화사 레드피터)가 기록 중인 380만여 명의 누적관객을 18일에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 '변수'이지만 26일 할리우드 대작 '테넷' 개봉까지 뚜렷한 경쟁작이 없어 흥행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배우가 처음 만난 '신세계'의 468만

관객을 뛰어넘을지 여부도 관심을 더하는 대목이다. 황정민과 이정재는 두 번째 호흡인 만큼 이번 작업에 더욱 세심한 공을 들였다. 서로 맞붙는 고난도 액션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다. 이에 이정재는 "저나 (황)정민 형이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이길 바랐고, 더 잘 찍고 싶었다"며 "촬영 내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논해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강동원도 '반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개봉 전 이미 해외 185개국 판매에 성공했고, 손익분기점(250만 명)도 일찌감치 달성했다. 17일까지 약 38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해 자존심도 지켰다.

특히 글로벌 활동에 의욕을 보인 강동원 입장에서는 추후 '반도'의 해외 순차 개봉에 따른 후광효과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반면 정우성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유연석, 박도원과 호흡을 맞춰 7월 29일 개봉한 '강철비2:정상회담'(감독 양우석·제작 스튜디오게니우스우정)은 175만 여명에 머물고 있다. 2017년 '강철비' 1편으로 445만 관객에 성공한 정우성은 '상호보완적 후속편'을 지향하는 2편에서 남한 대통령 역할을 맡아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 반영 정치풍자극을 완성했지만 폭넓은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3편 가운데 유일하게 손익분기점(395만 명) 돌파가 요원하다. 이혜리 기자 gafi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배우 강소라, 일반인과 29일 비공개 결혼



강소라

연기자 강소라(30)가 29일 연상의 연인과 결혼한다. 소속사 플럼에이앤씨는 17일 보도자료를 내려 "강소라가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한다"면서 "결혼식은 29일로 예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함에 따라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신 가족과 친지만 초대해 간소한 비공개 예식을 치른다. 강소라도 이날 팬카페에서 "행복한 결혼생활과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며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소라는 2009년 영화 '4교시 추리영역'으로 데뷔해 '씨니', 드라마 '미생'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해왔다.

SBS '집사부일체', 美 주민들로부터 피소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로부터 3일 국내 검찰에 피소당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지역 11가구 주민들은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진 및 제작진을 사기·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측이 2018년 8월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촬영했고, 관련 비용 역시 모두 냈다고 밝혔다.

블핑, 유튜브 구독자 女아티스트 세계 톱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가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구독자 4400만명을 넘어섬에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미넴을 제쳤다.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1위다. 1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저스틴 비버, DJ 마시멜로, 에드 시런에 이어 유튜브 채널 최다 구독자 보유 4위"라고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하루 10만명씩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다. 28일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곡을 선보이고 10월2일 첫 정규앨범을 내놓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류 퀸' 손예진, 필리핀 CF 접수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 손예진

톱스타 손예진이 필리핀 통신사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앞서 현빈이 광고모델로 발탁된 데 이은 것이다. tvN '사랑의 불시착'이 현지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힘입은 성과이기도 하다. 손예진은 최근 필리핀 통신사 스마트커뮤니케이션의 광고모델로 나서고 있다. 8월 초 계약을 맺은 그는 5월 현빈이 먼저 같은 회사의 모델로 꼽힌 데 이어 새로운 얼굴로 선택받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필리핀 통신사의 광고모델로 낙점된 데에는 '사랑의 불시착'이 현지에서 얻고 있는 관심과 인기가 큰 힘이 됐다. '사랑의 불시착'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현지에 소개돼 새로운 한류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됐다. 실제로 16일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손예진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필리핀 매체 스타모미터가

현빈 이어 필리핀 통신사 광고모델 현지매체 '가장 아름다운 여성' 뽑혀

선정한 '2020년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히며 또 다른 '타이틀 퀸'의 자리를 얻었다. 넷플릭스를 통한 '사랑의 불시착'의 현지 인기로 팬들은 SNS를 매개로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한편 13일 이후 '사랑의 불시착'은 새롭게 일본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와 '이태원 클라쓰'를 제치고 다시 현지 '가장 많이 본 콘텐츠' 정상 자리를 되찾아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제419980144668호

YouTube '1조원 기부 TV'(1, 2부) 동영상 시청 후 문의 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개, 고양이)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 인류, 반려동물까지
선착순 자동부자가 되는 우분투의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구세주
□ 21세기제2의 석유
□ **자본공유앱APP**, K-비즈, K-플랫폼
□ 선착순 자동월레이기부 풀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사무국장 김석만 목사 010-4277-0691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세계교회 대혁신 투자 총괄전도사 **한우 류창열** 전장

●서울 한우 010-2248-0815 / 황비 010-5647-5428 / 백민준 010-6462-6712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김광수 010-3207-8291 / 김경배 010-8290-8801
강영석 010-3274-5289 / 강신오 010-2209-1142 / 이순지 010-9725-2789 / 최복남 010-5661-4167 ●부산 김창주 010-8652-6452 / 이채영 010-7135-2369 / 백상석 010-7309-1000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주영원 010-42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류영순 010-6650-7567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송희정 010-7712-2202 / 김용환 010-3422-5998 / 전달만 010-2391-8259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이주환 010-4489-9789 / 박병두 010-8259-9980
김진호 010-6543-3126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창원 최정희 010-8231-0776 / 장인태 010-7586-7985 / 이철재 010-3572-4616 ●천안 김혜미 010-6258-3510
오명숙 010-8804-3424 ●안원 박윤표 010-3227-0993 / 서동원 010-3489-4190 / 김우중 010-8488-2899 ●김포 장재호 010-6416 1888 ●이천 하원석 010-4707-2659 / 한선희 010-5177-9479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수원 황베드로 010-7610-9936 ●충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997 ●하와이 윤이나 010-8763-6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